

# 전북 혁신성장 미래 청사진 그린다

포스트 새만금 국책사업 발굴  
도·출연기관·전문가 등  
산업진단 추진방향 보고회

전북도는 Post 새만금,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전북 혁신성장 미래비전 기획단'을 구성하고 지난 12일 '산업 분야별 진단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는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공동주재로 진행,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장 등 국책연구기관장과 도내 출연기관장, 창조경제혁신센터장, 탄소융합기술원장, '기획조정협의회' '혁신과 비전 TF', 전문가, 대학산학협력단장, 실과 시군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전북 혁신성장 미래비전 기획단'의 8주 운영기간 중에 중간보고를 갖는 자리로 도내 10개 출연기관장을 중심의 산업별 TF에서 논의한 산업별 현황 진단분석과 장기적인 시각에서 설정한 비전과 추진방향에 대해 전문가, 시군의 공유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각 산업별 TF에서 제시한 산업별 주요 사업은 ▲(농식품) 새만금 농식품 수출물류단지 조성, 친환경 생산단지 스마트팜 구축 ▲(미래산업) 지능형 에이전트 이동체 거점조성, 에너지 신산업 허브 구축 등 ▲(창조경제) 스마트 농생명 창업, 혁신



지난 1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승일 행정부지사와 최정호 정무부지사 공동주재로, 출연기관, 시군, 산학협력단 및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Post 새만금,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전북 혁신성장미래비전 기획단 산업별 TF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참석자들이 열띤 논의를 하고 있다.

신청업 캠퍼스 등 ▲(문화관광) 도심형 해양레저테마파크, 새만금 국제스마트 시티 조성 등 ▲(섬유융복합) '새만금의 세계적 섬유 패션의 도시' 조성, 태양광을 집광하는 인공광합성 섬유 등 미래형사업 제안이다. 특히 김제시에서는 민간육종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K-seed 조성, 새만금 관련 글로벌 복합레저 타운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이 논의됐다. '전북 혁신성장 미래비전 기획단'은 남은기간 동안 제시된 비전과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5년단위 실현가능한 사업, 중장기적 사업 등을 산업 TF별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을 열고 '전라북도 혁신성장 미래비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승일 행정부지사는 "시군에서

준비 중인 사업과 비전을 산업별 TF에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전북 미래비전 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 시군, 출연기관이 모두 힘을 모아 추진해 줄 것"을 전했다. /김진성 기자

# 세월호 수사팀장 증인 출석

윤대진, 우병우 재판서  
"해경 압수수색 때 전화해  
꼭 해야겠느냐"  
수사 외압 의혹 상세 증언

세월호 참사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대진(55·25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지난 12일 법정에서 우병우(52·19기)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 외압 의혹을 상세히 증언했다.

윤 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6월5일 해경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던 검찰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서버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서버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와 관련된 청와대의 지시내용이 전부 녹취 돼 있었다. 이 때 팀장이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이었던 윤 차장이다.

윤 차장은 이날 "인천 해양청 본청 사무실 압수수색을 나간 한 검사가 '상황실 경비전화 녹취록이 보관된 전산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하니 해경측에서 참관하는 경찰 책임자가 자취를 감추고 연락도 안 된다'고 유선보고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전산서버 녹음과일이 압수수색 대상인지를 놓고도 얘기가 오고 간다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로 했다"면서 "그래서 영장상 범죄 사실 관련 자료가 저장돼 있는 전산서

버도 대상이며, 다만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면 안되니 가급적 해경 지휘부와 만나서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다"고 떠올렸다.

윤 차장에 따르면 이후 해당 검사로부터 해경 책임자들이 행방도 묘연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연락이 1~2회 더 왔다. 그리고 우 전 수석이 윤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가 것이다.

윤 차장은 "오후 4시쯤이었다. 5시는 안 됐었다"고 기억하면서 "우 전 수석이 내게 '혹시 광주지검에서 해경 사무실 압수수색하느냐'고 물어왔다. 그래서 광주지검 수사팀이 편성돼 착수했고 이번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서 오늘 해경 본청에 대해 하고 있다고 확인 해줬다"고 말했다.

윤 차장은 지난 2014년 6월5일 해경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던 검찰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서버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서버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와 관련된 청와대의 지시내용이 전부 녹취 돼 있었다. 이 때 팀장이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이었던 윤 차장이다.

윤 차장은 "우 전 수석이 그 다음에 '해경측에서는 상황실 경비전화 녹음돼 있는 전산서버도 압색을 하느냐', '해경측은 압수색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 안보실과의 통화내역도 저장돼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대외적으로 국가안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느냐'는 취지로 물어왔던 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윤 차장은 "우리 입장에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돼 있는 대상이라 불가피하다고 답변하자 '알았다'고 더 이상 다른 얘기 안 하고 끊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

## 전북도 온라인 홍보대사 출범

블로그기자단 9기 발대식 후 활동 돌입  
40명 모집에 198명 지원 5대 1 경쟁률

전북도의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는 '제9기 전북도 블로그 기자단'이 지난 12일 전주영화호텔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40명으로 구성된 기자단은 앞으로 전북의 정책과 문화, 관광, 일상 등

을 주제로 지역 곳곳의 현장을 취재하여 이를 전라북도 블로그 '전북의 재발견' (<http://blog.jb.go.kr>)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서류 심사를 통해 선출된 전라북도 블로그 기자단은 20대에서 60대까지 고른 연령층과 함

께 직장인, 학생,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됐다. 특히 서울을 비롯해, 부산, 경기, 대전, 광주 등 전북 외 다른 지역 거주자가 35%(14명) 비중을 차지해 전북에 대한 타 지역민들의 다양한 시각의 기사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기자단에는 여행전문 블로거, 각종 공모전 수상자 및 기자단 활동 유경험자들과 올해에는 처음으로 외국인(중국) 기자도 포함돼 어느 해보다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한

달간 '2018년 전라북도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했는데 40명 모집에 198명이 지원해 5.0대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대식에서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전라북도 블로그 '전북의 재발견'은 전 국민에게 전라북도를 알리는 창구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올해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은 해로 우수하고 다양한 전북의 매력을 온라인을 통해 알리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신청 접수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2018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을 안내하는 공고문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지역의 경우 스스로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보건소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도에서도 등록기관을 희망하는 단체가 많이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

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기관은 시설·인력 등 지정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상담·작성·등록·홍보 등 업무를 수행한다.

신청대상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공공기관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이며, 결과는 2월 1일 발표 예정이다. 제출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